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마트 등 계란 갑질 현상 여전

할인행사로 계란 평가절하 더 이상 없어야

계란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모든 영양소가 함유된 완전식품이다. 1970~80년대에는 계란 후라이가 최고의 반찬으로 각광받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기도 했다. 계란은 가장 저렴한 서민 음식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이미 계란 소비는 1인당 1년에 280개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졌고, 자급율도 99%이다 보니 국내에서 양계업을 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직업군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유통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물론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제도화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일명 후장기, DC 등의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대형 할인 매장 등에서는 여전히 할인행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매장에 직접 납품하는 농가들이나 거래 유통상인들에게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 정기적으로 할인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계란이 남아 적체 현상이 나타날 때 소비를 촉진시켜 주는 차원에서 할인행사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할인행사가 연례행사로 굳어지고 납품업체(농가)들에게 강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식의 피해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이와 관련 최근 계란유통상인 단체에서 모 식자재 마트 앞에서 ‘후려치기와 원가이하의 판매’에 대해 항의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해당 식자재마트는 지난 3월 매장 리뉴얼 재오픈을 하면서 기존 계란유통상인에게 30구짜리 한판에 1,000원이하의 납품단가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위 말하는 ‘마트 갑질’을 하였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강요했다면 이는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통상적인 시장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계란 할인행사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과거 가장 귀한 음식에서 최근 저가품으로 취급, 천

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그런 행위는 업계에 피해만 양산하게 된다. 생산자, 유통, 소비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고병원성 AI 평시 방역체계 전환

향후 '핀셋 살처분 정책' 가능성 시사

고병원성 AI가 지난해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2월 8일까지 총 31건의 발생(361만수 살처분)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고, 모든 방역대가 해제되고 AI특별방역기간

이 끝나면서 지난 4월 16일부로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번 발생은 산란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용오리 12건, 종계 2건, 종오리 2건 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AI 발생의 특징은 초기 급격한 발생과 동시 발생한 2개의 혈청형(H5N6, H5N1)이 나타났고 오리에서의 폐사율이 낮아 방역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살처분 범위 조정,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관리 등의 방역정책으로 2017/18년도(22건)를 제외하면 가장 피해가 적었던 사례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계란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닭고기 가격 역시 공급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는 등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AI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코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5월부터 동절기 대비 농가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향후 방역추진 계획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살처분 범위 최소화 방안으로 오염지역인 500m 이내에 가금에서 AI가 발생하더라도 전 축종을 살처분하지 않고 위험도가 낮은 육계 또는 우수 산란계 농장 등은 지방가축방역심의를 통해 살처분에서 제외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명 '핀셋 살처분 정책'으로 발생농장만 살처분하게 되면서 살처분에 따른 산업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3천만수 정도의 살처분을 기록, 계란파동을 일으켰던 2016/17, 2021/22년과 같은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6일 농식품부에서 있었던 'AI 방역추진 및 향후 계획' 발표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생산자, 학계, 연구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향후 보다 효율적인 예찰을 통해 적시, 적소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계열사의 방역관리 책임강화, 발생농장 입식 3단계 점검, 보다 효율적인 SOP 개정 추진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계**